

美, 관세복원 시동...한중일 등 '301조 관세' 예상

한달간 의견접수·5월 공청회·'글로벌 관세' 만료 전 결론 한미 무역협약의 수준 전망·USTR "사실상 정책은 동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중일 등을 상대로 착수한 무역법 301조 조사는 사실상 상호관세를 원상 복구하기 위한 명분 쉼기로 볼 수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권한 남용'으로 결론 낸 국제비상경제제한법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와 달리 법적 권한이 명확하다.

이번에는 '과잉 생산 능력과 연관된 불공정 무역 관행', 그리고 '강제 노동에 의한 상품 생산' 등 두 가지 이유로 각각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301조 조사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문제 삼아 관세 등을 부과하는 것인데, 실상은 미 행정부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외국을 압박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상호관세를 임시로 대체하기 위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 동안 매기고, 이 기간 내 301조 조사를 마쳐 주요국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셈이다.

대(對) 이란 전쟁이 한창 진행중인 상

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인 관세를 '복원'하는 작업은 일점포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제이미스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언론과의 사전 설명 브리핑에서 "법원 판결이나 다른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수단은 바뀔 수 있지만, 정책 자체는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말했다. 301조 조사가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의 '구멍'을 매우기 위해 취해지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대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급적 신속하게 301조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글로벌 관세의 유효 기간이 오는 7월 하순이면 종료되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 부처 합동으로 '301조 위원회'를 꾸려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을 접수한다. 접수는 오는 17일까지 시작되고, 마감은 다음달 15일이다. 이어 5월 5일까지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후 7일간 반박 의견을 받은 뒤 '대응 조치'(responsive actions)가 정해지는데, 관세를 비롯해 서비스 수수료, 협상, 기타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고 그리어 대표는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301조 조사는 1기 시절 중국을 상대로 이뤄진 바 있다. 당시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물론 재무부



‘내전’ 수단에 구호품 받는 주민들 3년 가까이 내전 중인 아프리카 수단에서 민간인을 겨냥한 잇단 드론 공격으로 이틀간 69명이 사망했다고 신화 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전했다. 사진은 세계식량계획(WFP)의 구호품을 전달받는 수단 주민들. 연합뉴스

의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 상무부의 수출 통제 강화 등 복합적인 '보복' 조치가 이뤄졌다.

관세 부과를 비롯한 미국의 대응 조치는 글로벌 관세가 종료되기 전,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어 대표는 조사 기간과 관련한 질문에 "150일 기간을 인식하고 있다"며 "목표는 무역법 122조 관세(글로벌 관

세)가 만료되기 전에 결론을 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조사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어렵다. 오히려 결과를 정해놓고 진행하는 '답정너' 조사였던 게 그간의 사례로 여러차례 증명됐다.

첫번째 사유인 '과잉 생산'을 이유로 한 조사 대상으로 한국을 포함해 일본, 대

만, 유럽연합(EU), 인도 등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무역협의를 체결했던 나라들이 망라된 것만 봐도 짐작 가능하다.

일단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은 기존대로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상호관세 15%)으로 관세가 복원되는 수준에 예상된다. 연합뉴스

이란, 이라크 영해 유조선 2척 공격...승조원 1명 사망

이란이 11일(현지시간) 이라크 영해에 정박 중인 해외 유조선 2척을 공격했다.

이라크군은 그간 주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외국 상선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왔는데 페르시아만 전역을 겨냥한 사실상의 '해상 테러' 방식으로 공격 양상에 변화를 꾀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양상이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이라크 항만 당국은 이날 미국 이라크 바스라 항구에서 발생한 미확인 공격으로 유조선 2척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승무원 25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쿠웨이트와 인접한 바스라 항구는 페르시아만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최근 이란의 공격으로 상선들이 지나기 위험해진 호르무즈 해협과는 직선거리로 800km가량 떨어져 있다.

이라크 당국은 공격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로이터통신은 이라크 안보 당국 초기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란 폭발물을 탑재한 보트 유조선들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번 공격으로 유조선 외국인 승조원 1명이 사망했다고도 전했다.

이라크 항만 당국은 바스라 항구의 원유 항만 운영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각종 필터&수처리 설비에 관한 모든 문제
(주)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주)호원테크

환경산업 개발을 일괄 추진하는 (주)호원테크는
설비기획,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처리, 설비 및 모든 필터 전문회사입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178
☎ 062)940-8221 · FAX 0629-945-8415 / HP 010-3646-8311